

《동도악부》의 문학사료적가치

전향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찬란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금지이며 민족문학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60~161페이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여 후세에 물려준 문학유산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금지 안겨주며 우리의 민족문학을 더욱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동도악부》는 15세기에 이루어진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김종직(1431—1492)의 문집인 《점필재집》에 들어있는 《동도악부》에는 우리 나라에서 악부시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의의있는 작품들이 기록되어있다.

조선봉건왕조초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의 한사람이었던 김숙자의 아들로 태어난 김종직은 유교성리학자였으며 15세기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인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고있던 학자로서 일생동안 《경상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의 문헌을 편찬하는데 참가하였으며 《청구풍아》, 《동문수》 등의 작품들도 편찬하였다.

《점필재집》은 1892년에 마지막으로 간행되였다.

《동도악부》란 동도 즉 경주지방의 민간노래를 토대로 창작한 악부라는 뜻이다.

악부란 민간에서 전해지는 노래를 한자시형태로 기록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악부시창작이 시작된 력사는 퍼그나 오래지만 악부라는 이름으로 나온 작품은 리제현의 《소악부》, 《후소악부》가 처음이다. 《소악부》는 고려말기 민간에서 전해지던 노래를 7언시형태로 기록한 한자시이며 《후소악부》는 제주도지방의 민간생활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한자시이다.

리제현이 창작한 악부시는 소재가 민간가요이거나 민간생활이며 사람들에게 일정한 교훈을 주는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김종직은 《후소악부》의 소재와 같은 생활을 가지고 《동도악부》를 창작하였다.

《동도악부》는 김종직이 경주지방에서 전해지던 력사적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자료에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귀감으로 될수 있는것을 가지고 창작한 한자시묵음이다.

《동도악부》에 수록된 한자시는 불과 7편이지만 소재의 선택과 악부시로서의 형식에서 진보적이고 독특하다고 할수 있다.

《동도악부》의 문학사료적가치는 첫째로, 소재가 독특하고 사상주제적내용이 비교적 진보적인것이다.

14세기이후 우리 나라에서 악부시창작정형을 보면 대체로 민간노래를 7언절구형태로 기록한것이였다. 리제현은 당시에 전해지던 민간가요를 7언절구형식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소악부》라고 하였다. 리제현은 그후 제주도지방에서 전해지던 세태생활을 7언절구로 기록하고 《후소악부》라고 명명하였다.

김종직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강희맹은 경기도 시흥지방 농민들속에서 불리우던 노래를 한자시형태로 기록하여 《농구》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 《농구》도 전형적인 악부시이다.

김종직의 악부시는 이러한 시들에 비해 볼 때 그 소재가 독특하다.

김종직의 악부시 《동도악부》는 15세기 후반기 경주지방 인민들속에서 전해지던 노래들과 함께 신라의 력사적인 인물들과 사건, 사실들을 소재로 창작한것이다. 력사기록에 전해지는 인물들과 사건, 사실에서 소재를 찾은것은 《동도악부》의 독특한 특징의 하나이다.

《동도악부》에서는 우선 우리 민족의 력사에 있었던 사건, 사실을 소재로 리용하였다.

《동도악부》의 《우시곡》, 《양산가》, 《치술령》, 《방아타령》 등은 《삼국사기》의 렬전에 들어있는 인물들의 생활을 소재로 잡고 창작한 작품들이다. 《동도악부》에서는 해당 악부시의 앞머리에서 이러한 소재를 머리말형식으로 소개하였다.

《동도악부》에서는 또한 우리 민족의 민족적풍습과 전설들을 소재로 리용하였다.

《동도악부》의 《회소곡》, 《달도가》, 《황창랑》, 《대악》 등은 우리 민족의 풍습과 전설을 소재로 잡은 작품들이다.

《회소곡》은 우리 민족의 오랜 민속명절인 한가위놀이의 유래를 소재로 잡고 노래하였고 《대악》은 방아타령의 유래를 노래한것이다.

《동도악부》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사상주제적내용에서도 비교적 진보적이라고 할수 있다.

...

나라를 위한 마음 다급하여라
창을 메고 처자와 리별하고
샘물에 마른밥 먹었지
적들이 야밤에 보루 엿보니
의로운 녀 칼날에 날렸어라

...

이것은 악부시 《양산가》의 한 부분이다.

력사적사건, 사실들과 인물들에 대한 작품들은 대체로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이름을 떨친 위훈과 그 위훈을 세운 인물들을 찬양하였다.

《동도악부》에서는 또한 우리 민족의 근면하고 성실한 로동생활풍습을 긍지높이 찬양하였다.

...

너인들 둘러앉아 물레질하니
여섯마을 아낙네 가득 모였네
네 광주린 찻지만 내 바구닌 비였네
술치며 일러주는 그 소리 우습고나
한 아낙네 탄식하며 천사람을 권고하니
사방에서 모두들 길쌈에 나섰구나

...

작품은 한가위풍속을 노래한 악부시 《회소곡》의 한부분이다.

이처럼 《동도악부》는 우리 민족이 지닌 애국심과 근면한 로동생활을 찬양하고있다.

《동도악부》의 문학사료적가치는 둘째로, 형식이 이채로운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자시는 형식이 일정하게 규정되어있고 형식에 내용을 맞추는 방향에서 창작되기때문에 다양한 생활을 폭넓게 반영하는데 지장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리제현의 《소악부》를 들수 있다.

리제현의 악부시 《정과정》은 고려시기에 널리 알려져있던 민간의요 《정과정》을 옮겨 놓은것인데 7언절구로 만들다보니 민간의요의 한부분밖에 옮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리제현의 악부시에서는 우리 나라 민간의요의 고유한 운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동도악부》에서는 한자시의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적인 사건, 사실, 풍속에서 교훈으로 되고 귀감으로 삼을만한것을 읊으면서 한문운문의 고유한 형태적특성을 무시하였다. 그리하여 《동도악부》에서는 독특한 시형식을 이루어놓았던것이다.

《동도악부》에서는 우선 시의 행 및 련구성을 임의로 자유롭게 하면서 한문의 장단구 형식을 리용하였다.

한문운문에서 장단구는 시의 행과 련구성 그리고 시행의 음절수에 구애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단구형식은 한편의 시안에서 시행과 련구성이 제한되고 시행의 음절수가 고정되어 있는 절구에 비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자유롭게 반영할수 있다.

김종직은 자기의 악부시작품들을 장단구형식으로 만들어 내용을 충실히 하면서 동시에 운률을 일정하게 고려하려고 하였다. 실례로 박제상의 애국적활동을 찬양한 악부시 《치술령》을 들어보면 시행을 7언구로 하면서도 6언구를 넣어주었고 《방아타령》은 3언구와 7언구를 결합하였다.

《동도악부》에서는 또한 시행의 운률을 한자시형식과는 달리 우리 민족시가의 운률에 맞게 조성하려고 하였다.

한자시의 운률은 2음절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행이 2. 3 또는 2. 2. 3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동도악부》에서는 음절을 3음절을 기본으로 하면서 음수률을 3. 2조로 하였다.

실례로 《회소곡》은 음수률이 3. 3. 2 /3. 3조로 되었고 《우식곡》은 음수률이 3. 2. 3 /2. 2. 3조로, 《방아타령》은 3. 3 /3. 3 /4(2. 2).3/4(2. 2). 3조로 되었다.

이것은 한자시의 음수률을 따르지 않고 우리 민족시가의 고유한 음수률을 리용한것이다.

우리 민족고유의 시가형식인 시조의 음수률은 3. 4 /4. 4조와 3. 5 /4. 3조이며 고려가요인 《청산별곡》의 음수률은 3. 3. 2 /3. 3. 2조이다.

이처럼 《동도악부》는 중세 악부시의 소재와 운률구성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 악부시뒸음이다.

《동도악부》는 중세 우리 나라에서 악부시창작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후세에 창작된 악부시들은 소재탐구와 운률구성에서 대체로 《동도악부》를 본받았다. 다 시말하여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적사건과 사실, 민족적특성이 뚜렷한 생활에서 소재를 잡았으며 한자시의 고유한 운률조성상특성을 따르지 않고 다양한 생활을 풍부히 담으면서도 우리 민족시가의 운률조성에 따라 시행을 구성하였는데 이것은 《동도악부》의 창작성과를 받아들인것이다.

실례로 리익(1681-1763)의 《성호악부》, 홍량호(1724-1802)의 《청구단곡》, 리학규(1770-1835)의 《령남악부》 등은 대체로 우리 나라의 력사적인 사건이나 사실, 민족적인 향취가 짙은 생활에서 소재를 잡고 우리 민족시가의 고유한 운률을 살리는 방향에서 창작된 악부시들이다.

《동도악부》는 시가문학창작에서 사료적가치가 있는 귀중한 문학유산이지만 당대의 시대적제한성과 작가의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김종직이 봉건관료이며 유학자였던 관계로 《동도악부》에는 충군사상과 유교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있다.

실례로 《황창랑》에서 황창랑의 희생정신을 《임금을 위해 몸바친것》으로 노래하였고 우리 민족의 오랜 민속생활인 한가위를 노래한 《회소곡》에서는 가위놀이가 《녀인의 행실을 어긴》다고 하였다.

《동도악부》의 소재가 오늘의 경주지방의 생활에 국한되어있는것도 부족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도악부》에서는 삼국시기 신라에서 벌어진 생활에서만 소재를 잡고있다. 이것은 김종직이 경상도출신으로서 말년에 주로 경상도지방에서 생활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이밖에도 《동도악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풍습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주관적으로 노래한 경우도 있다.

《동도악부》에는 이러한 제한성이 있으나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귀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를 깊이있게 하고 그것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